



목사고시 대상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2016년도 목사고시 일정과 성경고시 등 안내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는 지난달 17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에서 2016년도 목사고시 대상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목사고시 일정 등 목사고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오리엔테이션에 앞서 드러진 예배는 고시위원회 서기 이석호 목사의 사회,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기도, 이어 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눅 4:24-27 말씀을 본문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시대와 때'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주의 종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을 강조하고 고시생들을 축복했다. 김인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목사고시 일정과 성경고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임원을 선출하고 연락망을 구축했으며 목사고시 문제집 발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목사고시는 2016년 2월 22일(월) 치러지며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행정학, 목회윤리학, 한문, 기독교교육, 교회성경학 등의 과목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성경고시는 2016년 2월 23일(화) 모세오경, 역사서(구약), 사가서, 예언서,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등의 과목에 대해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들이 출제되어 평가를 하게 되며 설교 및 면접은 성경고시 이후 곧바로 실시된다.

포토뉴스



전주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임종달 목사)는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쌀을 모아서 전주시 완산구청에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워 달라고 사랑의 마음을 표했다. 이날 전주은혜와진리교회는 10kg 쌀 120포를 전주시 완산구청에 전달했다.



‘영혼과 신앙상태를 진단하라’



조용목 목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 있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행 10:9-10

정기적인 건강진단은 건강과 장수를 위해 장려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진단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적 존재이면서 또한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영혼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저주받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상태를 진단하고 살피는 것도 매우 긴급합니다.

첫째, 영혼을 진단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변화는 오펜으로 감각되지 않습니다.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가식(假飾)없이 대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이처럼 믿는 당신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성도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진심으로 “아멘, 나는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 신앙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목회 지도자 양성, 마음자세를 새롭게

예하성광주신학교 2학기 개강예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광주신학교(이사장 주덕영 목사, 학장 김임복 목사)는 2015학년도 2학기 개강예배를 지난달 7일(월) 오전 11시 목양교회 예배실에서 드렸다.

이날 개강예배는 최남성 목사(교무처장)의 사회로 최정식 목사의 기도, 학장 김임복 목사가 살전 2:1-20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설립의 마음 자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광주신학교는 한국의 오순절 신학 정립

과 사도행전적인 목회에 헌신할 목회자의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며 “바른 영성과 정통신학을 겸비한 미래 목회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 힘쓰자”며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마음자세를 새롭게 다짐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이어 장영기 목사의 봉헌기도와 유영욱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찬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이 답소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성경으로 현재를 조명...” 반세기 복음전파 헌신

복음신문 창간 55주년 감사예배 ... 새 도약 다짐

복음신문 창간 55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지난 5일(월) 오전 11시 엠베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드려져 반세기를 넘은 세월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땅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감사예배는 팔린트 한인수 장로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태남 목사(한국오순절교회협의회 회장)의 대표기도, 테너 박주옥 박사(대신, 백석 통합 총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장 목사는 막 1:1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복음전파를 위한 일념으로 매진해온 복음신문의 창간 55주년을 축하하며 성경으로 삶을 조명해온 복음신문의 흔들림 없는 발자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설립자이신 나운몽 목사의 성령충만운동, 기도운동을 이어받아 한국교회와 다짐금 뜨거워 성령충만운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박준서 박사(연세대 명예교수), 김순권 목사(CBS 전 이사장), 고병수 목사(기쁜성 감독), 김소엽 시인(한기문예총 대표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재미파티니스트 이경미 박사의 특별연주로 축하의 순서가 있었다.

격려의 순서로 유순임 목사(한국기독교교회역사

신학연구원장), 이기경 목사(필리핀 G월드 총재), 원종문 목사(기쁨 공동회장), 최윤권 목사(기독교대 명예총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김진옥 목사(한국

범외방국민운동본부 상임회장)의 특별기도, 특별연주로 정미선 삼중주, 사회자의 내빈소개, 복음신문사 사장 나서영 목사의 인사말씀, 송기호 목사(정오성서 연구원장)의 축도로 창립 55주년 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교연,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강력저지

제5회 총회, 12월 1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연합 제4~4차 임원회가 10월 1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열려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지와 이슬람 확산, 종교인과 과세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원교단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81명(출석 27명 위임 54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임원회는 IT특별위원회(위원장 고시영 목사) 보고를 받고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저지, 이슬람 확산 저지, 종교인과 과세에 대한 회원교단 및 한국교회 전체의 공조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회원교단에 공문을 보내 목회서신 등의 방법으로 한국교회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문제를 보고한 박영수 교수(기독교역사정립위원회)는 현재 역사교과서에 기독교에 대한 서술이 타종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우리 자녀들이 한국 근세사에서 기독교가 아무런 한 일 없었다는 잘못된 역사를 배우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보다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임원회는 제5회기 대표회장을 선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다. 선거관



리위원장은 정관에 따라 작전 대표회장인 안영훈 목사가 맡게 되며, 위원들은 후보가 나올 나군을 제외한 가, 다 군에서 공동회장 6명을 양형희 대표회장이 당직에서 위촉해 발표했다.

제5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영훈 목사(작전 대표회장), ▲위원장 정영택 목사(동향), 장종현 목사(대신), 정서영 목사(합동개혁), 우종후 목사(합신), 김효종 목사(장신), 정세량 장로(한진신). 양형희 대표회장은 정기총회는 오는 12월 11일(금) 오후 2시에 한국교회백주년기념과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고 발표했다.

이날 임원회는 대표회장의 회비를 현실화하고 특별위원회 정수를 줄이는 등의 운영세칙 개정안을 놓고 장시간 논의한 끝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일부 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회기 중에 다시 다루기로 했다.

다만 공동회장은 9월 정로교 총회에서 선임된 총회장들로 공동회장을 교체하기로 하고 회원교단들에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회는 1년 1백만원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소천으로 공석이 된 법인감사에 김춘식 장로(기성 증정부총회장)를 보설했다.

예장 합동총신, 동성애 및 종교인과세 반대 결의

총회장 김병근 목사 등 모든 임원 유임, 교회표준 정관 채택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0회 총회(합동총신측 제23회)가 지난달 24일 인천 도화동 총회직영신학교 채플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총회'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동성애 및 종교인과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임원 선거에서는 제99회 총회장 김병근 목사와 부총회장 김철환 목사를 비롯해, 서기 허창범 목사, 부서기 이영재 목사, 회계 윤영숙 목사, 부회계 정금자 목사, 회의록서기 조응국 목사, 부회의록서기 정광재 목사, 총무 최철호 목사 등 모든 임원들을 유임하기로 했다.

총회장 김병근 목사는 "지난 회기 합동총신측 총회는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에서도 교회를 설립하고 지교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고하신 총회 내 교회들과 총회 임원들, 총대님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록 작은 총회이지만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총회,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총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한인안과 관련하여서는 동성애와 종교인과세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안건이 올라온 가운데 총대들은 차별금지법, 동성애성적 소수자 인권법, 종교평화법 등이 교회를 위협하려는 저의가 도사리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비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인 악법들이 입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동성애를 지지 조정하는 행위와 관련 입법 강력 반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아닌 종교인에 대한 과세법률안의 입법 결사 반대 등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지난 총회(제22차)에서 통과된 '지 교회 정관 통일'의 건'에 대하여 교회 표준 정관을 채택했다.

한편 합동총신측은 지난해 11월 총회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병근 목사)를 구성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편집본 심의와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출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신-개혁 송천동측 일부 합동 '예장 개혁'으로

총회장에 박영길 목사·부총회장에 박용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와 개혁 송천동측 일부가 서울 성북구 종암중앙교회에서 가진 제100회 총회에서 합동을 선언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연합하여 하나되는 총회'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개혁합동전권위원회 임장섭 목사와 개신합동위원장 박용 목사가 공동으로 합동을 선언하고, 합동위원 박영길 목사가 합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역사적인 100회기를 맞이해 개혁

를 향해 함께 가자"고 선언했다.

이어 합동위원회는 100회기 총회를 이끌 어갈 임원진을 발표하고, 박수로 추진했다.

이에 따르면 개혁 100회 총회 임원은 △총회장 박영길 목사 △부총회장 박용 목사 △장로부총회장 도명복 장로 △서기 하금식 목사 △회의록서기 양양호 목사 △회계 김영수 장로 △총무 최희용 목사 △사무국장 최승범 목사 등이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양 교단에서 개신신문과 개혁신문이 발행되고 있는 것을 정통개혁신문의 제호로 등록해 격주간 발행키로 했으며, 형제교단인 개혁 종로측과의 합동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후 행정과 사무를 위한 속회 총회를 전국노회가 끝나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종암중앙교회에서 계속해서 열기로 결의했다



역사적인 장로교 총회 제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합동)는 '말씀과 성령으로 새 출발한 총회'라는 주제로 지난달 14일(월)~16일(수)까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콘도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장 이광용 목사 사회로 총무 김광재 목사 대표기도 후에 특별찬양을 하고 증경총회장 주요한 목사가 '주님 따르는 자의 결단'이란 제목으로 한국교회 과거, 현재, 미래를 재조명하고 미래적 목회자의 해야 할 길에 대하여 결단을 촉구했다. 설교 후에 부총회장 김용희 목사 축도로 마쳤다.

선전절례는 부총회장 조영훈 목사의 '죽

복의 잔' (고전 10:14-17)이란 제목의 말씀과 자기의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총회장 이광용 목사 사회로 최명철 목사 기도 후에 총회를 시작하여, 상배부 조직 보고를 받고, 아래와 같은 총회사업계획을 결의했다.

1. 총회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의하다. 지금 조달은 각 노회와 지교회가 건축헌금을 하기로 결의하다. 2.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협력하기로 하다. 3.(사)예정연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CTS기독교TV방송 주주와 이사 교단으로서 복음방송 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다. 4.한국교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WCC는 종교연합 단체이다. WCC는 다원주의, 혼합주의, 동성애 사상, 한국장로교회를 분열시키고 한국교회를 분열뿐만 아니라 세속화 시키고 진리를

변질시키는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5. 남북통일을 염원한 신정으로 9월 15일 오후 1시에 하천 평화의 담에서 통일의 노래와 애국가를 부르고 통일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이어 '초대교회란' (행1:1-8) 제목으로 장로교회 제100주년 총회 폐회예배를 이광용 목사의 사회와 설교, 증경총회장 주요한 목사 축도로 드리고 총회를 폐회했다.

신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이광용 목사, 부총회장 김용희 목사, 조영훈 목사, △서기 권수룡 목사, 부서기 공운배 목사, △회의록서기 최명철 목사, 회의록부서기 박용수 목사, △회계 김홍 장로, 부회계 김상배 목사, △총무 김광재 목사, △총회신학연구원 학장 주요한 목사.

전국 목회자탁구대회 및 신학생탁구대회 개최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주최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이하 한기스총)는 지난달 17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갤러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수원시 국민체육센터 탁구전용구장에서 '분단70년 평화통일을 위한 전국목회자탁구대회' (9일)와 '신학생 장학금 마련을 위한 전국신학생탁구대회' (10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목회자 및 신학생 600명이 참가해 단식, 복식으로 나눠서 기금을 거두게 된다.

9일 탁구대회의 개막식에는 남경필 경기

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국회의원 이예리사, 정미경, 박광운, 한기스총 홍보대사 양영자, 현정화, 유남규, 김백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기스총 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탁구는 1900년대 초 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이제 우리는 탁구를 해외선교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전국 목회자 및 신학생 탁구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선교의 역수출에 초석을 다지는 대회가 될 것이다. 선교는 사명이다. 스포츠를 통한 영혼 구원 사역

에 생명을 걸 때이다."라고 말했다.

한기스총 대표회장 송용필 목사는 "성공적인 스포츠선교축제를 통해 온 기독교인이 하나되어 스포츠선교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가 앞장 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직위원장 김진욱 목사는 "분단 70년의 역사 속에서 곧 다가올 미래의 통일시대에 북한은 영적으로 부분별한 시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때에 탁구를 비롯한 스포츠는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구심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원받는 신학생들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준비위원장 이주태 장로는 "평화통일기원 탁구대회의 열정과 화합의 불길이 2018평창동계올림픽까지 이어져 세계인의 가슴속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나라로서 주의 영광의 빛을 더욱 높이 드러내게 될 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대회장치를 원하는 목회자와 신학생은 다음(www.daum.net) 카페 '한기스총 탁구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2015 하반기 전도사 시취 및 강도사 인허예배

예장 보수정통총회 중앙노회,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목회 지향



전도사 시취 및 강도사 인허 감사예배'를 드리고, 부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박현준 목사의 사회, 교목실장 윤원선 목사의 기도, 노회장 강진명 목사의 설교, 신대원장 반정용 목사의 축사, 학술원장 박인대 목사의 권면, 강진우 관사의 특

송 등으로 진행됐다.

노회장 강진명 목사는 '만민의 준비'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정직을 받은 모두에게 어떠한 주의 일인든 항상 준비된 종이 되어야 한다"며 "주님은 준비된 자를 쓰심을 기억하고 자유자재로 쓰임 받는 것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종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전도사 시취자는 김영희, 안국희, 이인찬, 이영찬, 정승구 등 5명이었으며, 강도사 인하는 김영남, 신병일, 이철구, 이철기, 오범진, 주세량 등 6명이다.

보수정통총회는 작지만 내실 있는 교단

을 표방하며, 사람과 생명이 넘치는 화합의 총회를 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총회장 강진명 목사는 비브리칼신학교 학장으로서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목회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도 헌신하고 있다.

한편 강진명 목사는 "비브리칼신학교는 우수한 교수진과 최고의 강의, 학생 중심의 운영으로 다양한 장학제도를 갖추고 있다"면서 "올바른 주의 종을 양성하는 산실로서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들을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031) 473-3927

www.bccyber.com

예장 한영, 교단 정체성 확립과 발전 전력

신임총회장에 남궁선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영총회 제100회 총회가 지난달 14일과 15일 양일간 한영신학대학교 대학본부 강당에서 개최되어, 교단 정체성 확립과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총회' (롬 8:28)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221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됐다. 총대들은 이날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교단영입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교단의 미래 청사진을 위해 교단 정체성 확립에 적극 앞장설 것을 한목소리로 결의했다.

총회는 전 회의록 낭독 및 채택, 헌의안 등 각종 보고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남궁선 목사를 총회장으로, 목사부총회장으로 최규석 목사, 장로부총회장



김진수 장로를 각각 선출했다. 또한 서기에 이계신 목사, 회의록서기에 이영명 목사, 회계에 김윤홍 목사, 총무에 김명찬 목사, 감사에 이영희 목사와 최정현 목사를 각각 선출했다.

신임 총회장에 선출된 남궁선 목사는 취임사에서 "한영총회에 속한 교회의 발전과 성숙이 이뤄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모로 부족

제고와 대외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할 때"라며, "한영총회가 중심이 되어 앞장설 수 있도록 총회장으로서 먼저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첫날 개회예배는 김천수 목사의 인도로 오세호 목사가 "같은 사람으로"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예장 합동선목, 총회장에 김국경 목사 선임

목회자의 자질 향상과 신학교 운영 위해 노력



예장 합동선목총회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간 목양교회에서 제100회 정기총회를 정상과 변화를 추구하는 총회' (목 13:18-21)를 주제로 열고 총회장에 김국경 목사를 선임하고, 주요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중앙노회 분림에 따른

북서울노회 노회장에 김정하 목사를 추대하고, 사무실 유급 상근직인 기획실장직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총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1부 예배에 이어 김이태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 후 진행된 제2부 본회의는 김국경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각 부 보고를 마친 후, 임원 선거에 들어가 무기명 투표로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김국경 목사가 총회장에 선임됐다. 김국경 총회장은 "목회자의 자질 향상과 신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교회와 노회, 총회가 공조하여 질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여 장로교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김국경 목사 △부총회장 유영자 목사, 고재운 목사, 문영호 목사, 김원순 목사 △서기 오윤주 목사 △회의록서기 문순애 목사 △회계 박찬봉 목사 △총무 이유은 목사

오직 한마음으로 뜻대만 바라고 달음질

충북지방회

제2회 한마음체육대회

충북지방회(회장 김정수 목사)는 지난달 21일(월) 제2회 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증평스포츠허브에서 가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번째 치뤄진 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방회 23개 교회 44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1부 예배는 체육위원회 부장 조재호 목사의 사회, 차장 정재광 목사의 기도에서 이어 지방회장 김정수 목사가 히 12:1-2의 성경을 본문으로 하여 '신앙의 경주자'라는 제

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경주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죄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뜻대로 바라보고 달음질해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인내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육위원장 김윤웅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친 후 10시부터 심판위원장 이동수 목사(원효순복음교회)의 진행으로 청군(청주 동부권역 17개 교회, 팀장 최동순 목사)과 백군(청주 및 서부권역 17개 교회, 팀

장 오병용 목사)으로 나뉘 본 경기에 들어가 총 9개 종목(공물기, 피구, 농구자유투, 배구, 볼링, 신발 던지기, 가위바위보, 족구, 계주)으로 나뉜 경기를 가졌다.

즐겁고 단란된 모습으로 오전 경기를 치루고 2개 식당(갑비탕집, 떡갈비집)에서 맛있게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에 족구와 계주를 끝으로 경기를 치른 결과 백군이 박빙의 승리(5개종목을 이기고 4개 종목을 패함)를 거두었다.

오후 3시에 드린 폐회식에서는 이진팀에게 대형 세제와 피죤을, 진팀에게는 세제



를 상품으로 시상하고, 40만원 상당의 노인 보행의자를 비롯한 자전거, 상품권, 건강식품, 운동기구 등 풍성한 경품추첨에 이어 증

경회장 이동수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한편 이번 체육대회는 지방회장과 체육

위원장이 자전거 1대씩을 경품으로 기증했으며, 증경회장들을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풍성한 경품과 찬조금을 내놓았다.

순복음모리아교회 이전 감사예배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오경덕 목사) 순복음모리아교회(담임 박옥희 목사) 이전 감사예배가 지난달 22일(화) 오전 11시 동교회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권정식 목사의 사회, 부회장 이성식 목사의 기도, 서기 신홍섭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오경덕 목사의 설교, 증경회장 최용운 목사의 권면, 증경회장 박기만 목사의 축사, 재무 김은수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최용운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오 목사는 창 22:1-12 말씀을 본문으로 '목회와 선택'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자



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담임 목사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역할 것"을 권면했다. 또한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스스로 행복해 하고, 하나

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사역을 이루어 갈 것"을 당부했다.

담임 박옥희 목사(순복음모리아교회)는 인사말을 통해 이전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충성되게 사역할 것을 다짐하며 함께한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감사했다.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6일(화) 복있는교회(담임 서경호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신동숙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희진 목사의 수 24:12-15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가 나와 내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를 세우셨다"고 전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은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원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모세가 60만의 원망 불평을 잘 견뎌낸다고, 요셉이 원망하지 아니함같이 절대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단과 지방회 회원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합심기도를 드리고,

정미자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헌금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각종 보고와 지방회의 현안들을 은혜롭게 처리하는 등 월례회를 마치고,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목회자 기도모임, 횃수를 거둬할수록 열기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양인 목사)에서는 '목회자 기도모임'을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갖는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기도모임은 횃수가 더해 갈수록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교세가 약하고 형편이 어려운 교회부터 순번을 정하여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역의 현안들을 들어주며 함께 기뻐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며 중보기도 하는 것이다. 아직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지난달 15



일 기도모임 때는 뜨거운 기도의 함성에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광주에서 시작된 기도의 불씨가 성령의 비랍을 타고 한국교

회와 식어져가는 목회자들의 가슴에 들불처럼 번져가기를 소망했다. 다음 달 기도모임은 오는 13일(화) 오후 7시 순복음혜의복음교회(담임 김정순 목사)에서 열린다.

일산벤엘교회, 목사임직 및 제직 임직

일산지방회

일산지방회(회장 서영조 목사)는 지난 20일(주일) 오후 4시 일산벤엘교회에서 동 교회 창립 3주년 기념예배 및 목사임직, 장로장립, 집사인수 예배를 드리고, 이종재 목사, 주재은 장로, 주동운 안수집사의 앞날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다.

1부 예배는 조영란 목사(지방회 총무)의 사회로 시작되어 신선에 목사(순복음 주원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서영조 목사(서일산교회)가 약 4:11-12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지리에 서지 말라'라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서 목사는 "우리 모두는 남을 비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지리에 서는 것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변화되고자 발버둥치는 성화되고자 열정을 다하는 삶과 사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임직자들을 축복하였다.

2부 목사임직은 안수위원장 서영조 목사(지방회 회장) 집례로, 안수위원 박미자 목사



(부회장), 이진우 목사(재무, 회계), 박승호 목사(양의분 교회), 조영란 목사(지방회 총무)가 참여한 가운데 이종재 전도사에게 본 교단 헌법 37조 1항에 의거하여 서약을 받고, 가운착의, 임직기도, 악수례, 공포, 안수증 및 임직패 증정의 순으로 임직식이 진행되었다.

주재은 집사의 장로장립은 본 교단 헌법에 의거하여 서약을 받고, 가운착의, 임직기도, 악수례, 공포, 임명장 및 임직패 증정의 순으로 임직식이 진행되었다.

주동운 집사의 집사 안수는 조영란 목사

의 집례로 본 교단 헌법에 의거하여 서약을 받고, 안수, 악수례, 공포, 임명장 및 임직패 증정의 순으로 임직식이 진행되었다.

3부 권면과 축사 시간에는 정부은 목사(전 부총회장)의 권면, 박승호 목사(양의분교회)의 격려사, 이진우 목사(주인의 교회)의 축사 후에 이종재 목사의 담사와 조영란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지방회장 서영조 목사의 축도로 목사임직, 장로장립, 집사인수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후 일산벤엘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애찬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월례회, 교단과 지방회 위해 기도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고현진 목사)는 지난달 17일(목) 군산 주바라기교회(담임 김중곤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 부회장 김배울 목사의 기도에서 이어 지방회장 고현진 목사가 고전 12:22-27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주께서 세운 목회자'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회계·재무 심혜임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김중곤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고현진 목사



주제로 열려 각종 회무처리를 처리하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기도했다. 이후 주바라기교

회(담임 김중곤 목사)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선유생명교회, 노현찬 명예장로 등 임직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김정수 목사) 선유생명교회(담임 박행남 목사)는 지난 3일(토) 명예장로 장립 및 권사 임직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직식은 노현찬 명예장로, 정영월 권사와 심신자 권사, 김선정 서리집사 등이다. 1부 예배는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서기 오세준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김정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명예장로 장립과 임직식은 지방회장 김정수 목사의 인도로 담임 박행남 목사(선유생명교회)의 임직사 소개, 지방회장의 안수사에 대한 서



약 및 안수위원들의 안수, 그리고 담임 박행남 목사의 정영월 권사와 심신자 권사, 김선정 집사의 인명이 이어졌다. 이어 증경회장 한승수 목사의 권면, 부회장 탁정신 목사의

축사, 지방회장 김정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후 선유생명교회가 전진회관에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맡겨진 사역에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길’ 당부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정수 목사) 9월 월례회가 지난달 14일(월) 평강순복음교회(담임 유병일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권영무 목사(우리순복음교회)의 사회, 연재만 목사(양강순복음교회)의 기도에서 이어 유병일 목사(평강순복음교회)가 마:18-2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마리아의 신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 목사는 설교에서 충성된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와 어느 대기업을 회장의 회장이 시립을 세우는 모습을 책을 통해 읽은 것을 예로 들면서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함 그릇이었음을 주언하며 우리 역시 맡겨진 목양사에서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당부했다.



증경회장 윤경현 목사(보은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월례회의는 지방회장 김정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의 인도로 진행되어 각종 보고와 회부를 처리하였다.

특히 지난 8월 6-8일에 있었던 유청소년 여름 수련회 결과(64명 참석) 보고를 교육부장 신현찬 목사를 들고 내년에는 200명을 예

상하여 수련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9월 21일 증평스포츠허브에서 열린 제2회 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 설명회를 체육위원장 김윤웅 목사를 통해 듣고 모든 교회가 적극 후원하며 참여하기를 소망했다. 월례회를 마친 후에는 교회에서 마련한 애찬을 나누며, 운동(족구)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생명의 말씀 ■



김덕영 목사
· 서울중앙지방회장
· 전리교회 담임

무디 선생은 언제나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이 컵에서 어떻게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뿜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기 펌프로 빼면 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은 ‘그렇게 하여 진공이 되면 컵이 깨집니다’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빛나간 대답들이 있을 후 무디 선생은 미소를 지으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 보세요. 공기는 조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탄복할 때 무디 선생은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죄를 제거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짐으로 죄를 제거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시도행전 9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9절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10-18절에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

성령 충만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 (행 9:10-22)

고 세례 받게 하였고, 19-22절에 복음 증거자가 된 사울의 다메섹 활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사울이 바울 되는 변화의 삶이 성령충만 전과 후의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성령 충만 받기 전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스테반 집사 죽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사울이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성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는 허락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열심이었던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자기들의 사상이나 지식이나 종교적으로 맞지 아니하였기에 그러한 것으로 자기중심으로 생각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파요,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하에서 배운 자요, 대제사장의 신임 받는 정예가 기대되는 탁월한 청년으로 자기신념이 있었기에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과 사상으로 자기중심이 되어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성령충만 받기 전

사울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인심이 없어지고 사회가 각박해지는 것이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자기의 학벌, 지위, 재물, 사업 등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인권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조롱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욕심과 자만 때문입니다.

우리로 사울처럼 자신의 그릇된 신념, 자기중심적 욕심과 사상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두가 틀렸고 내 유익을 위하여 누가 무어라 해도 양보할 수 없는 사람이지는 아니합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보니 이해나 관심이나 양보는 아예 사라진 삶이 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잠 28:26)라고 했습니다. 나 중심의 신념, 주관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성령 충만한 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중심으로 사는 아주 소수 사람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삶의 중심에 놓고 호호함을 느끼며 삽니다. 결혼 전은 애인을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놓고 행복해 합니다. 부모가 되어서는 자식 중심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미 있는 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은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한 가지에 미쳐야 그 일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이 될 게 명백합니다. 언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삶이 윤택해 집니다. 주님은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크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마 6:30)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지도 못하게 되어 식음을 전폐 하였다가 아나니아의 안수 받고 보게 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5-16절에 이렇게 하신 것은 사울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자기중심의 삶을 깨뜨린 후 사울은 바울로 변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르쳤을 때 사울이 예루살렘과 다메섹에 핍박자로 왔는데 하고 거절하게 되니 이는 자기중심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울에게 갔으니 하나님 중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임하여 살게 되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

복하는 삶이 됩니다.

주의 빛과 음성을 들었던 사울이 사울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으니 이 사울이 요나의 고기 뱃속의 회개 기도처럼 사울이 자기중심적으로 지랑스럽게 여기던 기문, 학벌, 경험, 지식과 사상 체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자신이 깨어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기독교에 큰 획을 이루는 것으로 16절 말씀대로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였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갈 2:20)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했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성령충만 받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 사울은 자기입장 중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도 자기중심적 삶을 끊고 버리고 깨끗히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메섹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에 앞장 선 바울된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승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 괴롭히는 자기중심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여 이웃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려 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한국교회의 의견과 제언을 무시하고, 보란 듯이 특정 종교의 요구와 주장대로, 그들의 입맛에 맞춰, 국민들의 혈세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멈추지 않으므로, 결국은 종교를 정치적/정책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책동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어떤 권력자도 종교를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이 되고 있고, 거대한 이익 집단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기독교도 이웃 종교의 국가 예산 타쓰기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바티칸 보다는 카타콤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힘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도 이런 사회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무원칙한 정부의 종교 편향 지원이 결과적으로 종교의 타락과 멸망을 앞당기는, 잘못된 정책임을 깨달아, 모든 종교 지원 정책과 행정을 단호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동 정

루터교세계연맹 의장 방한



루터교 세계연맹(LWF) 무남 유난 의장이 방한, 지난날 23일 서울 후암동 루터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루터교

세계연맹은 전 세계 98개국 145개 루터교단의 1억 명 성도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로, 루터교회는 각국의 총회장 혹은 감독-루터교세계연맹으로 이어지는 협의체계를 가지고 있다.

군종목사 67년사 출판



한국 군종목회(이사장 최명묵)는 1948년부터 2015년까지 67년간 이어온 육·해·공군 대한민국 군종목사 역사를 총망라한 <대한민국 군종목사 67년사>(백창현 편저)를 출판하고 지난날 14일 오전 1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출판 감사 및 군 합동시례 44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제30차 열린대화마당



한목협(대표회장 김경원 목사)은 제30차 열린대화마당을 오는 22일 송실대 한경직기념관 1층 김덕윤예배실에서 개최한다. 미리 다가는 통일 탈북민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개회행사, 주제강연, 열린대화와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강연은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청년일자리펀드 장종현 목사 기부



예장 대신-백석 통합총회장이며, 백석대학교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가 청년일자리펀드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 장종현 총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종교인은 물론 시민사회 모두가 적극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정부의 편파적 종교지원, 정교분리원칙 무너뜨려

최근 한국행정정보의 발표에 의하면, “종교와 국가의 위험한 밀회”가 있으며, 정부의 편파적 종교지원은 비판받아야 함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우리나라는 헌법 제 20조의 소위 “정교분리원칙”을 위배하면서, 사실상 공인교(公認敎)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의 핵심은,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함에 있어, 종교들 간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그 효과면에서 특정 종교를 진흥하거나 혹은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원칙은 헌고무신짜처럼 취급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그 단적인 예가 정부의 종교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에서 2013년 집행한 예산을 보면, 주요 종교의 신도수와 지원 예산 비율로 놓고 볼 때, 유교는 신도 수 0.4%인데, 예산은 12.1%를 받았고, 불교는 신도 수 43%인데, 예산 지원은 56.4%를 받았고, 천주교는 20.6%인데, 8.9%를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기독교는 34.5%의 신도 수가 있으나 예산은 2.8%로 매우 심각한 불균형과 편향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정부의 종무정책에 대하여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문화정책학회 회원 228명과 모 대학의 공공정책대학원의 재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의 상위 10개 사업을 살펴보면,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이 8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불교 진각종 진각 문화 국제 체험관 건립이 79.8%로 2위였고, 7대 종단 지도자 이목종교 체현 해외 성지 순례가 79.0%로 세 번째, 그리고 안동종교타운 조성성이 78.2%이다.

그 밖에도 불교의 템플스테이 지원은 2004년 18억원으로 시작하여 지난 해에는 242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관광정책으로 위장한 특정종교 진흥책으로, 이는 명백한 “정교분리원칙” 위배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학술지에 의하면, 불교가 2008년 이명박 정권시절, “정교분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종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불교계는 국가 보조금의 중단을 주장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도 꼬집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은 지원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종교의 정부 의존적 행태와 정부의 무원칙적인 종교 편향지원이 종교를 병들게 하고, 종교의 세속적 욕망을 키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 종교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제반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정종유착의 위험성”을 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4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 아 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4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2015년 9월 19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진 등 용
총 무 목사 김 병 묵

사 단 법 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2015년 정기총회

일시 2015년 10월 30일(금) 오전 11시

장소 은혜와진리교회(영등포성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가 입 교 단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총회장: 유영식 목사, 총무: 조원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총회장: 진동용 목사, 총무: 김병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총회
총회장: 공병철 목사, 총무: 이상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총회
총회장: 장완준 목사, 총무: 도용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진리)총회
총회장: 김영길 목사, 총무: 조영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신측)총회
총회장: 김병근 목사, 총무: 최철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동)총회
총회장: 이한영 목사, 총무: 구쌍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총회장: 이 위 목사, 총무: 유종근 목사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총회
총회장: 이상익 목사, 총무: 권오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동신)총회
총회장: 최상열 목사, 총무: 김동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성목총회
총회장: 황상호 목사, 총무: 최천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영신총회
총회장: 김혜순 목사, 총무: 강인형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명희 목사, 총무: 안형숙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김지현 목사, 총무: 최상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수도)총회
총회장: 박경숙 목사, 총무: 한정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은혜)총회
총회장: 김태진 목사, 총무: 송계바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
총회장: 홍복두 목사, 총무: 박영출 목사
한국 H I M 선교총회
총회장: 홍정식 목사, 총무: 박호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진리총회
총회장: 박태영 목사, 총무: 김은실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장신)총회
총회장: 김효종 목사, 총무: 광명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개혁총회
총회장: 이성재 목사, 총무: 안태성 목사

임원명단

△고문: 조용목 목사(예하성)
△고문: 최보기 목사(기침)
△고문: 배기은 목사(예장호헌)
△고문: 배진기 목사(예하성)
△고문: 이준원 목사(예장합동총신측)
△고문: 김상용 목사(예하성)
△고문: 최상열 목사(예장동신)
△고문: 윤덕남 목사(기침)
△이사장: 배기은 목사(예장호헌)
△대표회장: 임종달 목사(예하성)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기침)
△서기: 박찬목 목사(예장합동보수)
△부서기: 김동민 목사(예장동신)
△회계: 이상용 목사(예장합동진리)
△부회계: 최상호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감사: 공병철 목사(예장합동진리)
△감사: 박봉수 목사(URC협의회)



사 단 법 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THE COUNCIL OF CHRISTIAN DENOMINATIONS IN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811호
TEL : (02) 786-1601~4, FAX : 782-8095
http://www.ccdk87.com, ccdk87@kom.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본 교단 소속 사역자들은 목사안수를 위하여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한다.

● 원훈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1. 모집학과 및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연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40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반명함판 사진 6매(3개월 이내 촬영)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여부

3.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4.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 ③ 원서접수: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 ④ 면접: 개별통보
- ⑤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5. 전형료 및 임금계좌번호

* 전형료 50,000원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6.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 Master of Ministry, 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고 교단 목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한다.
- ③ 접수된 서류가 하위로 발견되면 합격여부를 하위라고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④ 기타 상세한 문외는 본 대학원 행정사무실로 문의 바람.
- ⑤ 접수방법: 지원자는 대학원 홈페이지(www.agpgs.or.kr)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접수. 전형료는 계좌에 입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직통 (02)2677-0692~3, FAX (02)711-995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홈페이지: www.agpgs.or.kr, E-Mail: agpgs@hanmail.net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학년도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주·야간)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오순절 신학의 정립과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설립을 위해 헌신할 거룩하고 충성된 일꾼을 양성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본 신학교는 아래와 같은 교육목표에 따라 교단의 일꾼들을 양육한다.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육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④ 선교현장의 실천적 자료개발과 제공

● 교훈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1. 신·편입생 지원자격

학 과	수업 연 한	지원자격
신입생 (신학과)	4년 8학기 120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편입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제 대학졸업자는 3학년에 편입 전문대 졸업자는 2학년에 편입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을 원할 경우 해당 학년별로 편입가능

2. 제출서류(각1통)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성적 증명서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건강진단서(HIV포함)
- ⑥ 반명함판 사진 6매(3개월 이내 촬영)
- ⑦ 신앙고백서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본 신학교 행정실로 문의
- ② 원서교부처: 본 신학교 행정실 및 신학교 홈페이지
- ③ 원서접수: 본 신학교 행정실로 문의
- ④ 필기시험 및 면접: 개별통보
- ⑤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⑥ 합격자 등록기간: 개별통보
- ⑦ 전형료: 30,000원
- ⑧ 등록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본교 행정실 방문

● 입학상담 및 문의

☎ 직통 (02)2677-0692~3, FAX (02)711-995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홈페이지: www.agpgs.or.kr, E-Mail: agpgs@hanmail.net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창립3주년 감사예배

경기동남지방회

경기동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담임 표현자 목사)는 지난 9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세류2동에 위치한 동교회에서 창립3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지방회 총무 박흥열 목사(오성사랑교회 담임)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샬롬빛교회 담임)의 기도,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평강순복음교회 담임)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골 3:15-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의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으며 감사의 생활



을 통해 감사할 상황들이 더욱 더 생겨남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특송에는 목회자 사모연합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돌렸으며 증경회장 이규호 목사(순복음동산교회 담임)의 축사, 증경회장 최병일 목사(신행제일교회 담임)의 권면이 있

었다. 이어 담임 표현자 목사는 앞으로 더욱 몸 된 교회를 세워 나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고 또한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회계 정세창 목사(안성은혜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 순서를 은혜가운데 마쳤다.

선한열매교회 이전예배



경기동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 선한열매교회(담임 김진태 전도사)는 지난달 13일(주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 갈

은 관할 구역인 당수동 261-7번지 2층 200호로 성전을 이전하고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는 지방회 총무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표현자 목사(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의 기도,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시 11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선한 열매를 맺는 지혜에 관해서 큰 은혜의 말씀을 전파했다. 축사에는 증경회장 최병일 목사(신행제일교회)가 권면에는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가 축복하고 권면했으며 선한열매교회 담임 김진태 전도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열매를 맺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하였다. 이날 예배는 회계 정세창 목사(안성은혜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예배에서는 참석한 회원과 많은 목회 대학원 동기생들과 후배의 축복과 특송으로 큰 격려가 되었으며 큰 관심과 기도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어려운 이웃과 한가위 사랑의 송편 나누기

사랑의실천국민운동본부, 장애인·양로원·보육원·탈북자 등 대상

사랑의 실천국민운동본부(대표 박찬성)와 (사)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가 지난 9월 25일(금) 오후 1시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종로구 창민빌딩 2층에서 이웃사랑대행진 '한가위 사랑의 송편 나누기' 행사를 갖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잠시나마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그리스사태와 올여름 우리나라를 덮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인해 가중된 국제경기위기와 국내경기 장기불황의 여

파로 기업 등의 후원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과 대한민국지킴이 민초모임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들인 무의탁 노인과 탈북자 등에게 우리 사회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박찬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계속되는 불경기로 후원과 돕는 손길들이 줄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인해 작은 정성이지만 IBK기업은행의 후원과 뜻을 같이

하는 단체의 도움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한가위 사랑의 송편 나누기' 행사에서는 장애인 단체, 양로원, 보육원 등 100곳과 종로지역 무의탁 노인 300명, 탈북자 300명에게 송편 300말, 음료수 300Box, 과일 200Box 등을 돌리며 한가위 보름달 같은 정을 되새겼다.

이번에 사랑의 나라를 펼친 사랑의 실천국민운동본부는 기독교를 비롯한 범종교계와 대한적십자사, 한국화랑 청소년육성회 등의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1984년 발족한 순수 민간단체로 그동안 심장병 어린이 돌기, 청소년 가정을 위한 대바자회, 효도사랑 대행진,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운동, 어르신 사랑의 도시락 점심 급식운동 연말연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한가위 사랑의 송편 나누기 운동 등 이웃사랑 대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교회 본질회복’... 종교다원주의·동성애 배격

예총연,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 제9회 전국대회

한국교회가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격정하는 세태를 직시하고 안타까워하며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주최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협의회(회장 남윤국 목사) 주관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 제9회 전국대회가 지난 1일(목) 종로5가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열려 회개와 기도의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오직 나의 신으로’(숙 4:1-10)라는 주제어래 2백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 제9회 전국대회는 스랍의 하모니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되어 하나총회 총회장 강영희 목사의 사회, 예총연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환영사에서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영적 혼란과 아동 속에서 표류하는 고장난 배처럼 궤도수정도 못하고 회귀할 생각도 못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혼합주의의 거센 바람에 떠밀려가며 기우뚱 거리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짐이 어느 때보다 무겁지만 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하고 “오늘의 전국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파수꾼으로 한

국교회를 깨우는 경각의 나팔을 뜨겁게 불어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총회 총회장 우정은 목사의 대표기도, 개혁보수 총회 총회장 권용태 목사의 성경봉독, 김항두 목사의 특송, 기교협 회장 남윤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남 목사는 숙 4:1-10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개인이든 국가든 공동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다보면 문제를 피할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인간의 무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을 넉넉히,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계속해서 부회장 전승용 목사의 헌금기도 후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세계선교를 위해’,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 협의회를 위해’, ‘예총연과 소속 교단 및 단체와 교회들을 위해’ 부회장 김재환 목사, 동원분과위원장 김신욱 목사, 홍보분과위원장 전해숙 목사, 영접분



유영섭 목사
예총연 대표회장



남윤국 목사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 협회장

과위원장 최현자 목사, 기교협과위원장 박진은 목사의 주제별 기도 인도가 후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문제해결하기 위해’ 사무총장 반정웅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기교협 총무 신정수 목사는 결의문제장을 통해 신행일치의 목회자, 믿음과 신뢰를 주는 성도, 교회의 본질회복과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종북주의, 차별금지법 등을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예배는 서기 홍종철 목사의 광고, 기교협 직전회장 이순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회원들은 이번 대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과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 예배가 살아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살아나고 성도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송곡개로 219(어현동 470-16)

●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 택배판매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피부·성형·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 색소클리닉 2. 여드름클리닉 3. 흉터클리닉 4. 비만클리닉
5. 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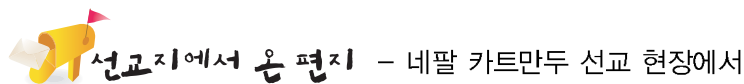
월·수·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지진 후유증에 희망을 잃은 네팔인들에게 복음을 ...

라히(48), 그는 작년 봄 이도제 목사(65)의 제안과 준비로 장로 장립을 받은 버니만달 장예우 교회의 지도자적 인물로 활약하에 의지하여 거동하는 중증장애인이었다.

그 이외 이 사람에게 대하여 개인적으로 별로 아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무슨 인연인지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만났던 인물이다. 애초의 초청과 마지막 쫓겨남이 리히로 인함이고 6월초 몽골에서 네팔에 재입국하여 그 다음날에 만나 점심을 같이 한 이도 바로 이 사람이었다.

2013년 난데없이 휴대폰을 울린 낯선 목소리, 그리고 대뜸 목사님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말문을 열었던 사람. 그래서 뜻밖에 만나게 된 장애인 리히와의 첫 만남. 기도 한 번 해보지 않았던 대상과의 만남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 일방적 명령일 수도 있었기에 일단의 교제가 시작되었다.

그와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부근 버니만달 동리에 집을 빌려 매주 토요일이면 함께 모이는 장애인들만의 예배가 있다는 말이 마을이 끌려 일차 들르기로 약속했다.

첫 날 참석 한 예배모임에서 전혀 알아듣지 못한 저들의 찬송과 기도, 말씀내용이었지만 웬지 모르게 다른 교회에서 쉽게 느낄 수 없었던 열정적인 분위기에 나도 모르는 감동을 받아 뜨거워지는 마음을 주체하기 힘들었다.

무엇보다도 저들은 숙소 겸 예배실로 사용하는 건물 한 칸 밖에 종류별 색칠로 짠 수공품이 걸려있어 용도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생계를 위해 매일같이 몇 사람이 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만들어 판다고 한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어떤 대책도 전무한 나라에서 저들의 지활을 위해 인간함으로써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저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 그래서 계속된 예배 동참이었다

매주 설교는 지도자적인 라히, 아리살람, 깨삼, 유브라이 등 40대 중년들이 순번대로 하였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저를 작게가쪽들 20-30여 명이였다.

한 두 번 함께 하는 동안,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이 물질임을 알았지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심일전나 감사, 아니냐 예배일의 점심대접 외에 더 이상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현실이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낮은 열력을 위해 기도하던 중, 당시 남달리 가까이 지내던 이** 목사에게 이야기 삼아 한 것이 동기가 되어 종래에 그분의 개인으로 또 다른 제3의 코인데 독자들을 참여해 하여 적지 않은 헌금이 공여되었고 마침내 장애인들만의 교회가 신축되었다.

버니만달의 장애인교회가 완공된 후, 어느 날 이 목사의 제안이 있어 현재 지도자 역할을 하는 네 사 람을 목사와 장로로 임직하는데 합의를 보고 여타의 모든 준비는 이 목사가 챙기는 가운데 담임 목사와 장로 임직식을 가졌다.

언제라도 도움이 손길에 필요한 장애인들임을 모르는바 아니라 저들을 위해 선교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직접 보라는 물질 대신 여타 과정을 거시화하여 사진과 함께 소속 교단에 보내어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혹이라도 이에 함께 참여하는 독자들을 기대하는 것 더 이상은 없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따름이었다.

작년 9월, 비자연장 문제를 부득이 네팔을 떠나야만 하였고 다시 지난 6월초 이 나라를 찾아온 직접적인 동기는 네팔의 지진이었고 다른 또 하나의 동기라면 지진 이후 어쩔사리 개척교회를 하는 친분 있는 네팔 목사의 참담한 현장소식, 작년 9월 떠날 때는 아마도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앞섰던 생각과는 달리 그저 지난 속에 허덕임 가난한 서민들의 모습이 먼저 눈에 어른거려 한 번 더 작심하고 이 땅을 밟게 된 것이다.

당장 카트만두에 도착하면 당일 목어야 할 숙소부터 미리 결정해 둘 사항이라 마음에 다가온 도착 일 동안 가장 궁금히 여겨 한국에서부터 연락을 시도했던 장애인 리하군을 찾았다. 언어 장벽으로 소상한 대화는 할 수 없었지만 그저 단순한 몇 가지 안부를 주고받고 점심식사를 나눈 후 헤어졌다.

그런 외중, 이민국에서 처음 만나 알게된 서** 목사가 침술치료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의사타진을 한 결과 장애인교회에서 일차 시술봉사를 해주기로 약속, 그 날짜를 잡기 위해 유브라이(장애인교회 목사)를 만나 다음 주 금요일에 일단 예배만담을 가진 후,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기로 하고 당일엔 교회를 찾았다.

바로 이날이다. 몇몇 장애인들, 그리고 라히도 눈에 띄었지만 저들은 평소처럼 누군가 내방하여도 집 짓 거들 떠 보는 척도 없었다. 그래서 그날은 일부터 라히에게 다가가 당신은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나고 물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전혀 뜻밖, 당신 왜 여길 왔어? 들어가! 오지마! 활채어 탄 몸으로 칠 듯이 앞으로 비딱 내밀며 불이며 호통을 치는 게 아닌가!?

어려 장애인들이 주변에서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여차구나없이 일어난 돌발상황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더하랴. 더 더욱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판국에...

이후리 이리저리 생각해보자 저들에게 아랄듯 박 대담할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한편은 과묵하기도 하고 그래서 담임 유브라이 목사를 동역인 어닐과 함께 따로 만났다. 어떤 연유인지 사정이라도 들어보려고 했지만 그의 말 역시도 별반 의미가 없는 하나님께 맡기

고더 좋은 처방책이나 내 놓으라는 거다. 더 좋은 처방책이란 디름 아닌 바로 돈이다. 당신이 우리를 계속 만나기를 원하면 돈부터 먼저 가져오라는 말인 것이다.

저들 저의에는 본 선교사가 바로 장애인들을 홍보, 도우는 척하며 자기들을 팔아 다른 이로 부터 원조금을 받아 먼저 착복하고 나머지 찌꺼기나 내놓는 파렴치한 정도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또한 그들과의 짧지 않았던 교제기간에 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랑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해 저들의 눈에 비친 선교사란 단지 금할 때 물질의 도움이나 얻어내는 마치 전주처럼 보였다는 것 또한 다른 변명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선교사가 굳이 장애인으로 변신해야만 할 불구가 아니라는 점 한 가지를 빼고는 사도 바울처럼 천막을 기워 팔아야 생계유지가 가능했던 입장과는 약간의 시대적인 차이가 있을뿐 실상은 내일이라도 선교현장을 접고 귀국해야만 하는 확정된 지원금을 일정한 곳으로부터 계속 받고 있는 여유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저 그때그때 살아가며 약간의 것이라도 선교대상에게 기여하기 위해 내뱉으로 일관해야만 하는 현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들이 받은 은혜는 비록 선교사에 의한 동기였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상하신 사랑과 베풀었음을 모른다면 오히려 받지 않을만도 못하며, 또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것을 누리도록 중간 역할을 해준 선교사에게 최소한 고마움만은 지니고 있어야함이 사람의 도리일 것이다. 인간관계란 이런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때가 이르면 말하지 않아도 모든 악의 행위는 하나님에 진히 감당하셔서 이를 백일하에 드러내실 것이며, 의와 진리를 좇아 나아가는 아예겐 공의로운 판결이 반드시 따를 것이지만 그럼에도 짓고 넘어가야 함은 너무도 신적인 세상살이에서 이와같이 유사한 일들을 경험해야만 하는 삶의 현상이라 모두가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를 피력해 보는 것이다.

2015년 10월 2일
네팔 마갈기는 옥탑방에서 김성봉 선교사 후원기자번호/ 국민은행 457001-01-002622 우체국 102434-02-163989 Nepal,reporter Sang-Bong Kim

김조광수·김승환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 기자회견

우천 중에도 전국에서 1,000여 명이 참가, 기자회견 후 대법원장에게 탄원서 및 서명지(약 4만 명) 제출

지난 7월 27일(월) 오후 2시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김조광수 커플의 혼인 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과 관련하여 동성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후에 각지에서 보내온 약 6만 명의 탄원서와 서명지를 서부지법에 접수했다. 그리고 8월 4일(화) 대법원 앞에서 또 한 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이때에도 2만 여 명의 탄원서 및 서명지를 접수했다.

이제까지 접수된 탄원서 및 서명지는 약 20만 건이 넘었다. 이러한 탄원서의 물결은 곧 대한민국의 동성혼 합법화를 반드시 막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를 뜻한다. 혼인은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1항에서 이미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1997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확고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전(前) 서울서부지방법원 이기택 법원장은 헌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뒤로 하고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비송 재판 건으로 접수하였다. 7월 6일 단독 재판장으로서 비공개 심리를 마치고, 판결문 발표를 남겨두고 있던 중, 반대 여론이 빚발치자 발표를 미루고 주춤하고 있다가 대법관으로 이동하게 됐다. 그래서 동성혼 심리 시안은 현재 이태종 후임 서부지법원장에게 넘어간 상태다.

이기택 전(前) 서부지법장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서부지법에 많은 양의 동성혼 반대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을 전하며 “그 사건은 좁게 보면 혼인신고를 한 두 부의 법적지위에 관한 사건인데 동성결혼의 공익적 관심사가 높다는 점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혼 허용문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발 물러났다. 때늦은 바는 있지만 합당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

동성혼 합법화가 미칠 사회적 파장과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서방 국가의 사례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서방국가들에서는 1남1녀의 결합이라는 가정의 전통적·보편적 개념이 무너지면서 중혼(重婚-1부 다처, 1처 다부), 근친혼, 그릇혼, 동물과의 결혼 등도 합법화하려는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을 내세워 갖가지 결혼 형태를 인정받겠다고 한다. 동성혼 인정은 결혼의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헌법과 기존의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제쳐놓고 한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동성혼 합법화가 가름된다는 것은 상식과 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국민적 합의 없이, 헌법 개정 없이 서부지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건전한 윤리와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동성결혼 허용을 결단코 반대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보편적인 정서와 맞지 않고, 헌법 정신과 법체계의 위계와 질서에 어긋나게 동성혼 합법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합당하게 조치해주기를 바란다.

2015. 10. 1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 이용희

구세군, 제3회 다문화축제 성료

구세군 다문화센터(센터장 최형수 사관)가 지난 19일 안산 단원구 와스터디움에서 다문화 한마음 한가족 체육·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축제는 다양한 나라와 문화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단원임시아구장에서 펼쳐진 야구 시합에는 한국을 포함해 나이지리아,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콩고, 필리핀 등 다양한 문화권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대공방에서는 이주민가정이 직접 전통의상을 입고 현지 음식을 만들어 무료로 제공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여러 나라의 전통음식을 맛보고 의상을 입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대한결핵협회와 한국언론의 결핵예방캠페인과 무료검진, 에이즈퇴치연맹과 중독관리센터의 질병예방캠페인, 안산 단원경찰서의 외국인범죄상담, 안산대학교와 원곡고등학교의 체험캠페인, △물·자연보호캠페인 △무로미용봉사 △무로미급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해에는 특별히 러시아 스포츠클럽 달라니시의 시립



예술고등학교 공연단이 방문하여 러시아 민속무용을 소개했다.

구세군 다문화센터는 한국을 포함해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부모·자녀간 갈등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구세군 다문화 레전드 FC 축구팀에는 10여개 국 65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어, 그레도 우린 하나!' 야구팀에는 5개국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비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모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20,000원(택배비 2,000원 별도)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헬렌루아!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예금주)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수가 잘 빠진 2013~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 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자”

예장 정통총회 제51차 정기총회



총회장 양정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합동측 박복경 목사가 정립하여 반세기이름)는 지난 9월 21일(월) 구로동 평안교회에서 제5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리회복을 위해 더욱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이영춘 목사의 대표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장 양정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양 목사는 행 10:1-8 말씀을 본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나다나엘처럼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 교역자들은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 존경받는 경건한 사람이 되고, 백부처럼 겸손한 동역자가 되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총회의 동역자들이 되고 아브라함 같은 신앙인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총회와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사역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총회에

들어가 임정태 목사의 기도와 부서기 전대식 목사가 총대보고 하니 171명 목사 및 총대가 참석하여 정족수가 되므로 총회장 양정섭 목사가 개회를 선포했다.

식순은 유인물대로 받고 전 회의록을 회의록서기 조익수 목사가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고 사업보고, 재정보고, 각 노회보고, 임원회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했다.

이후 임원선거에서는 총회장 양정섭 목사가 유인되고, 부총회장은 김흥룡 목사, 이영춘 목사, 김인호 목사, 양성은 목사가 유인되고 한세전 목사가 선출되었다. 이어서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가 유인되고, 국내총무 박평원 목사, 국내부총무 임세준 목사, 해외총무 이광복 목사, 해외부총무 박현옥 목사가 선출되었고, 협동총무 김두경 목사 유인되고, 강대하 목사, 권순용 목사, 최은희 목사, 이영숙 목사, 서기 민경구 목사가 선출되고, 부서기 전대식 목사, 회의록서기 조익수 목사, 부회의록서기 김종경 목사, 회계 김영의 목사, 부회계 김병섭 목사, 감사 한성욱 목사, 이순례 목사가 유인되었다.

이어서 신안건토의예사업안과 예산안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다. 회의록체택은 차후 정기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타 안건은 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폐회하였다.

바선협, 조찬기도회 및 실행위

회원 확장안 등 사업계획 심의처리

세계바울부흥성교회(대표회장 심재선 목사)는 지난 9월 12일 오전7시 30분 올림피아크 호텔에서 조찬기도회 및 실행위원회를 갖고 협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1부예배는 사무총장 김종석 목사의 사회로 강봉구 목사의 기도, 기태영 목사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심재선 목사의 설교, 이승진 목사의 헌금기도, 황준익 목사의 헌금송, 조지현 목사의 성시낭송, 총재 이용규 목사의 격려사 및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실행위원회는 대표회장 심재선 목사의 사회로 문원순 목사의 개



회기도에 이어 ‘교회부흥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김종석 목사가, ‘나라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황준익 목사가 특별기도를 인도한 후 참석자 모두가 ‘한반도 평화와 복음화 통일을 위하여’ 합심기도를 했다.

안건토의시간에는 회의회확장 건을 비롯한 사업계획안을 논의한 후 다음 모임을 11월 11일 갖기로 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저는 고양시 원당에서 목회하는 최명화 목사입니다. 일반 목회자들과는 다르게 목사님들이 은퇴해야 할 시기가 가까운 나이인 58세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주셨지만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관심도 갖지 않고 살다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열 배나 더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지만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고 연세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땀을 모시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친 사에택교회 엄순자 담임목사가 초청을 해서 가족세트전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디에 이런 전도방법이 있었는지 놀라운 차원을 넘어서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전도세미나를 마치고 박영수 목사님과 함께 1층 상가에서 사임하시는 사장님들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 영접기도를 시키고 축복기도와 교배를 붙이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시간이 3-4분도 안 걸리는 전도현장을 목격하고 바로 나도 가족세트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전도했는데 12명 정도 영접기도 시키고 5-6개의 교회를 붙이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았고 또 90% 이상이 영접기도 받고 가족들의 신상명세서가 나오는 마법과 같은 전도법을 보고 저도 7월 1일에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에 바로 등록하고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월 후 8월 7일 원당 열린문교회에서 가족세트전도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이 날은 삼복중에서도 가장 더운 약 조건의 날이며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갑자기 들어가서 영접기도를 했을 때 영접기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런 생각과 우려는 주님께서 한순간에 다 날려보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서 함께 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박영수 목사님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서 상가나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머리에 거침없이 손을 얹고 영접기도 시키고 연이어 제가 축복기도를 해 주니까 너무나 무뎠어지고 행복해하며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술에 취해있던 청년을 만나게 하셔서 그 청년을 결신시키기 위해 지역 전도하던 것을 멈추고 그 청년과 함께 교회로 귀환하러서 거리에서 건너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무슨 잘못된 일이 있느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기에 청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도해서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해주려고 교회 가는 중이라고 하면서 누구냐고 묻자 그 아주머니가 바로 이 청년의 모친이라고 해서 그 모친과 함께 교회로 모셔 와서 식사대접하고 영접기도를 시키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는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저녁 집회까지 참석하시고 박영수 목사님이 두 분의 머리위에 동시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다 방언을 받고 열린문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결신을 하였습니다.

그 무더운 날에도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전도 나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관심 밖인 청년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어머니까지 전도하도록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들어서 교회까지 모셔와 결신시키고 열린문교회 성도가 되었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 주일인 8월 9일 11시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귀하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박영수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능력전도 하도록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기도와 환경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 드리며 남은 생애 복음 전도자로 살리라고 다짐해 봅니다. 할렐루야!

원당 열린문교회/ 최명화 목사/ 가족세트전도 현장중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한국교회와 사회 주요의제에 공동입장 제시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출범, 한국교회 갱신과 하나됨 위해 기도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가칭) 복원과 ‘한국교회 교단장회의’(약칭 교단장회의)로 개칭을 위한 총회가 지난 1일(목) 오전 11시에 정동제일교회 문화재예배당에서 열려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를 출범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14개 교단의 교단장을 포함한 36명이 참석, 1부로 기도회를 갖고 2부 회의를 가졌다.

1부 기도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인도로 ‘한국교회의 갱신과 하나됨을 위하여’, ‘민족의 화해와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한국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하여’ 등 5가지 주제로 기도했다.

2부 총회는 전용재 목사(기감 감동회장)의 사회로 모여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채택한 뒤, 현직 교단장 중에서 7명의 상임회장단을 추대했다.

교단장회의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교단장들이 진교를 나누는 가운데 민족의 평화적 통일, 사회갈등



해소, 목회자 남세문제, 한국교회 갱신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등 한국교회와 사회의 주요의제에 대하여 공동의 입장을 정리하여 교회와 사회 앞에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단장 회의에 참가하는 교단들은 사이비 이단 시비가 없으며, 합법적인 정관 혹은 장정을 가지고 있고, 공신력 있는 연합기관에 속한 교단으로 2001년에 창립된 교단장협의회로 모여서 활동하던 교단들이다.

예장 합동진리 정총, 교단화합과 발전 다짐

총회장에 박중선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진리 총회는 지난날 15일 한미음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총회’라는 주제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총회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총회장에는 박중선 목사가 유인됐으며, 임원 이하 목회자들이 한 마음으로 지교회 성장과 총회 발전을 위해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총회장 박중선 목사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어긋남이 없는 교단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우리 모두의 힘을 다하자”면서 “하나님을 위한 총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총

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사무처리에 앞서 드려진 개회예배는 홍기남 목사(총무)의 인도로 강순복 목사(부총회장)가 기도하고, 한기창 목사(증경총회장)가 출애굽기 4장 10-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총회 성장은 우리교회의 성장’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박수안 목사(부총회장)의 헌금기도, 정종진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박중선 총회장 외 이날 선출된 임원은 △부총회장 강순복 박수안 박대순 유근호 한정숙 최경환 나병하



박영덕 목사 서서기 최정영 목사 회회의록서기 최요한 목사 회회계 김정옥 목사 △대내총무 홍기남 목사 △대외총무 성경모 목사 등이다.

예수교대한하나님성회 부흥사회

새 가족 모집 및 자비량 부흥성회 신·청·안·내



회장
신재영 목사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는 역적혼란의 시대에 뜨거운 사명감으로 “예수의 예는 구원이 없다”는 확고한 진리를 말씀을 힘 있게 선포하며 이 땅의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신앙회복 및 우리교단의 부흥, 더 나아가 세계선교를 위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흥사회 임원으로 활동하실 분과 신임회원을 모집합니다.

부흥사로서의 자질과 사명은 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해서 활동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로 연락 주시면 부흥사 연수후 함께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기도로 준비된 부흥사들을 중심으로 말씀과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 성도와 교역자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 계속 이어져나갑니다.

우리 교단 교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성도들의 신앙회복에 도움을 주어 함께 성령행전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준비한 자비량 부흥성회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와 목회자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어 감동과 열정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자비량 부흥성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명 미만의 도시 미자립교회 및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자비량 부흥성회 신청을 기다립니다.

문의 : 회 장 신재영 목사 010-4420-8650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010-3698-5764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의료 봉사

외국인선교회와 수원아주대병원 봉사동아리 협력

지난 9월 13일(주일) 은혜와진리교회 수원성전 세계선교센터에서 교회 출석하는 외국인 성도와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이 실시되었다.

외국인선교회가 주관하고 아주대학교의료원 봉사동아리 소속 의료진들이 헌신한 이날 의료 봉사에 많은 외국인 성도와 다문화가족들이 찾아

와 선교센터내 진료실과 엑스레이 촬영장비 등을 갖춘 이동 진료 차량에서 안과, 내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의 진료·치료와 건강검진을 받았다.

특히 이날 한국에서 연수 중인 베트남의 영상 의학과, 성형외과, 호흡기내과 등의 의사와 간호사들도 의료봉사에 참여하여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건강보험 등의 혜택이 미흡해 몸이 아파도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해 아주대병원 의료 봉사팀과 협력하여 매일 한 차례씩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선교회에서는 함께 헌신할 의료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 은혜와진리교회 외국인선교회

☎ 031-237-0691



‘인도 은혜와진리 선교센터’에서

인도 벵갈로에서 은혜와진리교회와 사랑하는 세계선교회 회원을 비롯한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드리며 이곳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와 선교센터 모든 사역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에 우리 ‘인도 은혜와진리 선교센터’에서 개최한 교회부흥과 인도복음화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에 70명이 넘는 벵갈로 지역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이 참석하여 기도회와 강습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인도 복음화의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증과 찬양의 은혜로운 순서들을 통해 서로 사명감을 북돋우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잭슨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맡아 참석한 목회

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국 은혜와진리교회의 변함없는 지원과 기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8월 21일

벵갈로에서

인도 은혜와진리 선교센터 앤 데이빗 목사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Wedding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기독교연합신학연구원 건물 2층)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기독교신학연구원 건물 2층)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회 총회장배 예하성 교역자 테니스대회

오곡백과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을에 우리 예하성 교단의 교역자들이 모여 테니스 운동을 통한 친교와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총 회 장 : 진등용 목사
- ◆ 경 기 이 사 : 박상태 목사

- ◆ 준비위원장 : 윤병하 목사
- ◆ 진행위원장 : 조선남 목사
- ◆ 진 행 위 원 : 구석희 전도사

- | 일 시 | 2015년 10월 12일 (월) 오후 3시 ~ 오후 6시
- | 장 소 | 서울 목동 테니스장
- | 참석대상 | 예하성 소속 목회자, 장로, 목대원생, 기관직원
- | 참가비 | 개인당 1만원
- | 참석방법 | 파트너를 결정해서 A팀(교수), B팀(하수)으로 출전
- | 시 상 | A팀 : 1, 2, 3등, B팀 1, 2, 3등
- | 참가신청 | 윤병하 목사(010-7186-4819), 조선남 목사(010-5119-0164)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 상품외기념품과 당일 중식과 간식을 제공합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테니스회 회장 윤병하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강의를

이만석 선교사 // 이란 선교사, 한국이란인교회 담임, 4HIM대표, 한장총:이슬람 선교훈련원장

무슬림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1.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 이슬람은 거짓을 허용하는 종교: 타끼야 (Taqiyya)라는 교리=위장 허용 (꾸란12: 225)=맹세를 해도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알려껴서 용서하신다.
이슬람의 영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 못될 수밖에 없다.
●알리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는 타끼야 주장에 대해서
· 한국어=하나님, 중국어=쑹씨, 일본어=카미사마, 영어=God, 헬라어=데오스, 아랍어=알라
·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 유일신=Allah=이람이 정관사 al+Allah=Allah
· 이람이 성경과 꾸란의 신 명칭 비교=천지창조, 노아 홍수, 모세, 예수를 보낸 신
·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을 통한 전수=여호와, 이سم아엘을 통한 전수=알라

●이슬람의 영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성령이 아니다.(고전12:3) *십자가를 부인하는 영. *거짓 영(요일2:22) *적그리스도의 영(요

일2: 22)

2. 무슬림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이 전도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그를 믿는 길 외에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를 못 듣고 죽어가는 무슬림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
· 알라=하나님 @무슬림=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은 알리를 믿는 무슬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내부자 운동)

필박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로 편법을 써가며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전하는 행위는 십계명 중 1계명을 어기는 행위이며 알맹이는 빼고 껍질만 전하는 행위이다.

· 이슬람의 이싸(Isa)는 성경의 예수(Yeshua)가 아니다.

· 이슬람의 이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꾸란

19:88-91)

· 이슬람의 이싸는 삼위일체의 2위가 아니다.(꾸란

5: 73)

· 이슬람의 이싸는 신성이 없는 인간일 뿐이다.(꾸란5: 72)

· 이슬람의 이싸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꾸란4: 157)

· 이슬람의 이싸는 부활하지 않았다.(죽지 않고 산 채로 승천했다고 함)(꾸란4: 158)

· 이슬람의 이싸는 무슬림이었다.(꾸란5: 117)

· 이싸는 무함마드가 올 것을 미리 예고하기 위해 서운 선지자다.(꾸란61: 6)

3. 변증적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 예수의 신성에 관하여

· 삼위일체에 관하여

4. 무엇보다도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함.

이슬람과 꾸란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한신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대상별로 적용하되 기도를 통해서 무슬림의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함.

사설

전도에 힘쓰는 한국교회 되어야

10월은 천고마비의 좋은 계절이지만 동시에 나라의 부국강병과 국가 안보 태세를 위해 걱정해야 하는 달이기도하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나라 위한 기도와 남북통일 염원이 한층 깊어져야 할 달이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그에 맞서 북한 김정일은 인민의 고혈을 짜낸 열병식과 함께 저들의 최신 무기를 총 동원하여 10월 10일 이른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무력시위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는 10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이 10월 또는 11월 중에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합정공격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10월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안보외교를 전개하되 미·중·일·러 등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외줄타기와 같은 이슬이슬한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중 관계는 지난 9월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군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박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서 참관한 것을 계기로 "경열정녕(經熱政寧:경제는 뜨겁고 정치·안보는 차가움)의 상태에서 경열정열(經熱政熱:경제와 정치·안보 분야 모두 뜨거움)의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일각에선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에 기울어진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부정할 수 없는 처지다. 굳이 말한다면 "연미친중(聯美親中: 미국과 연합하고 중국과 친교함)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맞을 듯하다. 한·중 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연간 1천만 명의 인적교류와 3천억 달러의 교역을 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다. 반면에 중국은 일본을 견제하고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일본에 기울어 있는 것을 제동하기 위해 대한민국 중시 노선을 견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외교 관측통들의 다수 견해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의 핵위협과 우세한 미사

일, 중·장거리포격 위협, 그리고 잠수함 전력을 도저히 자체 무력으로서는 억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는다 해도 핵무장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국제관계 하에 있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제한을 받고 있다. 외교적 패배·독재 집단의 북의 김정은 일파와는 전혀 다른 온 세계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북의 돌발 공격과 같은 민일의 위기에서 구해줄 구원의 손길은 도대체 어디 있던 말인가? 국가 안보란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둔 유비무환의 대비가 있어야만 한다. 평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 안전한 군비 태세는 일단적의 급습과 같은 돌발사태가 터지면 처절한 타격을 받고 치명상을 당한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안보는 문자 그대로 "천우신조(天佑神助)"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625년침전정과 휴전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의 안전판 아래서 휴전선의 평정상황이 그나마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김일성 3대의 온갖 크고 작은 도발 속에서도 위기를 모면해 온 것은 실로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의 수가 늘어나야만 하겠다. 그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 4:2)고 하신 명령 그대로 전도에 전도를 더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피땀이 결국 나라를 구하는 힘이 된다는 의미와 같다 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남한 5천만 인구의 반 수 이상은 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가장 강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고 했다. "전정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도 또 전도하는 일이 구국요이 이 나라 국방 안보의 최후 보루라 믿고 전도하자.

초대시

예광 장성연 // 서예가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역임 / 현대기서문학 연구가 / 한국원로서화가 한국대표작가 / 미국 매릴랜드 초대전('98) / 미국 한국대사관 초대전('98) / 문인화 여행 외 13종 서화교본 발행 / 한국민족문학상 수상('06) / 정도 육백년 자랑스런시민상('94) / 기독교문화예술대상('07) / 도전 한국인상 대상 수상 /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국회) / 1998년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우수상 / 1988년 KBS전국취향대회 금상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제4대 서울서예가협회 회장 역임

장로답게 하옵소서

장로들은 교회기둥 주춧돌이 되옵나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목회자와 화목하며
교회일을 내일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헌신봉사 사명안고 장로답게 하옵소서

말한마디 행동하나 움직이는 교회이니
이세상의 빛과소금 주의이름 드높이면
하늘의복 가득가득 우리에게 주시리니
감사하고 찬송하며 장로답게 하옵소서

믿지않는 이웃들과 이세상을 함께할때
예수향이 드날리며 바른신앙 지니어서
그들들도 나의행동 지켜보며 감동받아
스스로가 주님영접 전도되게 하옵소서

장로직분 주신것을 감사로써 받아들여
어려운일 만나서도 그러려니 감사하면
엷히있던 일이라도 스스로가 풀리리니
오직감사 생활화로 장로답게 하옵소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6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류접수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1) 목사고시 청원서 : 총회 홈페이지(www.aogk.org) → 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 교단서식 → 15호 목사고시청원서 다운

(2) 구비서류 : 목사고시 청원서 참조

* 2부 작성하여 1부는 총회 고시위원회에 제출, 1부는 지방회에 보관.

2. 서류접수처 : 150-15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3. 서류심사 : 2015년 9월 3일(목) 오전 11시

4. 오리엔테이션: 2015년 9월 17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5. 성경고시

(1) 논문 대신 성경고시 실시.

(2) 성경고시는 성경암송과 문제풀이로 함.

6. 목사고시 : 2016년 2월 22일(월) ~ 23일(화), 오전 10시 총회본부

7. 목사고시료 : 50만원

(1) 납부일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2) 입금계좌번호 : 국민 061701-04-17686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8. 목사고시 응시자격 :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목사고시 과목

(1) 구약학 (2) 신약학 (3) 조직신학 (4) 교회사 (5) 교회 행정학 (6) 목회 윤리학 (7) 헌법 (8) 기독교교육 (9) 교회성장학 (10) 면접 (11) 설교 실기(5분)

* 설교는 2부 작성(심사용1부, 설교자용1부) 목사고시 당일에 제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진동용 고시위원장 목사 김인규
총무 목사 김병묵 서기 목사 이석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 전국사모단합대회

주제 : “새 힘을 얻으리라”(사 40:31)



♡♡ 초 · 대 · 합 · 니 · 다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로
사역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충성하시는 사모님!
사모님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전국 사모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벤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인내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모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귀한 동역자들을 뵙기 위하여
2015 제5회 전국 사모단합대회를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시간들을 모아 주님께 드리고자 준비한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모님들을 축복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사모회 임원 일동

| 일 시 | 2015년 10월 19일(월) ~ 21일(수) 2박 3일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 은혜와진리수양관
| 대 상 | 총회 산하 전국 사모
| 등 록 비 | 없음
| 찾아오는길 | 지하철 1호선 명학역 하차(역앞 차량대기)
| 문 의 | 회장 신동신 사모(H.P. 010-4129-6503)
총무 박경미 사모(H.P. 010-2167-7422)
| 후원계좌 | 농협 351-0802-1891-43 신동신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

일 정 표

♡ 첫째날 10월 19일(월)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12:00 -	등 록	환영!! 등록 및 숙소 배정
12:00 - 14:00	점 심 식 사	
14:00 - 16:00	개 회 예 배	강사 : 조용목 목사
16:00 - 18:00	레 크 레 이 션	강사 : 변원식 목사
18:00 - 19:00	저 녁 식 사	
19:00 -	특 별 집 회	찬양간증(하귀선 사모)

♡ 둘째날 10월 20일(화)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06:00 - 07:00	기 상	개인QT
07:40 - 08:40	아 침 식 사	
08:40 - 10:10	탐 방	한국 기독교순교자기념관 방문
10:10 - 12:00	탐 방	농촌 테마파크 방문 및 산책
12:00 - 13:30	점 심 식 사	
13:30 - 17:45	관 광	한국민속촌
17:45 - 19:00	저 녁 식 사	
19:00 - 19:30	찬 양 과 경 배	인도 : 최은성 전도사
19:30 - 21:00	특 강 1	강사 : 임종달 목사

♡ 셋째날 10월 21일(수)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06:00 - 07:00	기 상	개인QT
07:40 - 09:00	아 침 식 사	
09:00 - 10:30	특 강 2	강사 : 정부용 목사
10:30 - 12:00	폐 회 예 배	강사 : 진등용 목사
12:00 -	점 심 식 사	식사 후 각 지역지로!

* 모든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5 전국사모회 임원

고문	고문	고문	중경회장	중경회장
				
박희숙 사모 (성문교회)	최혜선 사모 (다락방교회)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김양란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창경애 사모 (진주은명교회)
직전회장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김영숙 사모 (순복음가재중앙교회)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박경미 사모 (순복음송리교회)	오숙희 사모 (발은빛교회)
회계	감사	협동총무	부서기	부회계
				
조정애 사모 (순복음약속교회)	이은숙 사모 (순복음중앙교회)	최선희 사모 (예수나라교회)	김귀순 사모 (이세아순복음교회)	서수영 사모 (은혜중앙교회)